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發行人 崔主聖 主 鑄秀泳
 編輯人 李聖瑞 主 聖瑞
 印刷人 崔瑞 主 瑞

發行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 銀行지로番号 : 7500875
 ●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世界로 뻗어가는 우리 동창회



美洲支部結成 사진 ①在美서울대학교總同窓會 및 장학재단 창립총회 (91.6.1) ②崔主鑄회장이 陳奉日 뉴욕지부 회장에게 支部旗를 전달 (90.10.13) ③워싱턴 南加州 시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회장과 美洲총동창회 결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 (90.10.15) ④해외지부 순방차 美國을 방문한 崔회장 일행을 위해 南加州지부가 주최한 환영모임 (90.11.6)

冠岳春秋

지난 6월 1일에는「在美서울대학교 同窓會」창립총회가 거행되었다. 美洲에 거주하고 있는 2萬餘명의 求心點이 마련되어 대전스리원 축하해마디 양는다. 美洲에는 50개의 州가 있어 州마다 同窓會支部가 결성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활동중인 支部로는 뉴욕, 워싱턴, 北加州, 텍사스, 필라델피아, 하와이, 시카고, 南加州, 조지아 支部를 들 수 있다. 남은 美國에 散在해 있는 동창들을 결집하기 위하여 全美國支部가 결성된 것이 活性化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

海外 동문들의 結束

國의 정착해 있는 동문들이 異域萬里를 떠나 하지 않고 동창모임을 가지기 위하여 한자리에 會同한다는 것은 불가능해도 힘든 일이다. 이들에게 本部는 母校와 同窓會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할 것이요, 외로움에 젖어 있는 동문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本部는 각 支部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會員名簿와 同窓會報를 배포했고 同窓會歌와 校歌카세트 테이프를普及하고 있으며, 지부에 同窓會旗를 전달했고 골프대회등 行事時에는 會長優待를 증정하는 등 帶強化에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 支部會員 個人에게 惠澤이 갈 수 있는 支援方案을 모색해야 하겠다.

全美洲同窓會의 結成은 동창회 本部의 多年間의 支援과 헌신有志들의 共同努力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90년 11월에는 會長團이 美洲의 南加州, 시카고,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同門會를 방문하여 현지 동문들과 會合하였고 美洲支部의 창립을 권유하였다. 그 뒤 本部에서 創立準備金으로 3천불을 지원하였고, 곧「在美서울大財團」기금으로 1萬불을 송금할 예정이다. 이러한 本部의 지원에 힘입어 全美洲同窓會支部가 결성되었기에 그 紐帶關係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 기대된다.

동창회활동이 國內에만 머물지 않고 世界로 雄飛하여야 하겠다. 모교가 民族의 大學 世界의 大學을 표방한지 20년이 되었다. 이제 同窓會도 세계로 나뉘어 뻗어가고 世界各地에 흩어져 있는 동창들을 묶는 紐帶가 되어야 하겠다. 이국땅의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는 동문들에게 母校의 소식을 전하고 동문의 動靜을 알리는 同窓會報를 개인 양으로 보내는 작업도 진행해야 하겠다. 海外에 거주하고 있는 同窓회들은 同窓會를 展開하여야 하겠고 外國서 고생하고 있는 동문들을 錦衣還鄉시키는 役割도 해야 하겠다. 在美서울대학교 同窓會 結成을 계기로 동창회 事業이 全世界的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研究所에 希望을 걸고

(3)

「고급과학연구원」-정리
 고
 3차 이상급의 과학자
 연구원 800여명
 연구원 800여명
 연구원 800여명

理論物理 연구센터

基礎科學뿌리

고급과학연구원-정리
 고
 3차 이상급의 과학자
 연구원 800여명
 연구원 800여명
 연구원 800여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고급과학연구원-정리
 고
 3차 이상급의 과학자
 연구원 800여명
 연구원 800여명
 연구원 800여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고급과학연구원-정리
 고
 3차 이상급의 과학자
 연구원 800여명
 연구원 800여명
 연구원 800여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各大學 우수頭腦 76명 참여 粒子物理·量子論 등 6개 분야 공동研究

고급과학연구원-정리
 고
 3차 이상급의 과학자
 연구원 800여명
 연구원 800여명
 연구원 800여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연구 센터의 연구원 76명

自然 현상 수학적 究明... 선진국과 交流도

고급과학연구원-정리
 고
 3차 이상급의 과학자
 연구원 800여명
 연구원 800여명
 연구원 800여명

연모호향환
학의회장·
母校명예교
수) 6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인천 공무원연수원에
서 제13회 자연보호세미나를
개최.

▲鄭回甲 (51년 음
대주·한국
음의협회의
사장) 6월
19일 오

후5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음악의향향」의
출판기념회
를 가진.

▲曹祥鉉 (51년 음
대주·한국
음의협회의
회장·본會
이사) 6월
17일 12시 신라호텔
에서 내년 7월 서울의
서 개관되는 제20차 국제음
의의향향의 세계대회의 유치
장학·지정박람회 기념사업회
사장의 포용을 받기로
결정.

▲申光澤 (56년 獸醫大
漢陽신용회
의회장·母校교수)
6월28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林明子 (56년 看
護學科·大
방충출신대
교양연구소)
6월28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安商元 (56년 師
大·서울
시敎聯회장
김국대학교수)
7월2일
건국대 학생회관에서
「論文集」教育의
理念과實
踐」발간식을 가진.

▲洪承五 (58년 文
理大·大
學·本會
副理事) 6월
28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金光善 (58년 法
大·本會
理事) 6월
28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李章哲 (60년 商
大·本會
理事) 6월
18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韓昇洙 (63년 行
政大·本會
理事) 6월
11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高學均 (64년 農
大·本會
理事) 6월
25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李相哲 (60년 商
大·本會
理事) 6월
18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文熙和 (60년 文
理大·本會
理事) 6월
18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李章哲 (60년 商
大·本會
理事) 6월
18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吳世榮 (65년 文
理大·母
校교수) 6월
18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金景鎭 (67년 醫
大·本會
理事) 6월
27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徐丙禹 (67년 醫
大·本會
理事) 6월
27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金景鎭 (67년 醫
大·本會
理事) 6월
27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徐丙禹 (67년 醫
大·本會
理事) 6월
27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金景鎭 (67년 醫
大·本會
理事) 6월
27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徐丙禹 (67년 醫
大·本會
理事) 6월
27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金景鎭 (67년 醫
大·本會
理事) 6월
27일 서울시
「한글학회」에서
「한글학회」를
주최로 「한글학회」를
개최.

「반민익일」金塔産業動向수상

羅植煥 亞南精密부회장



자본 5천만원의 羅植煥 (66년 師大·亞南
精密産業會會長)의 자
이 26회 發明의 날
을 맞아 부회
회 26회 發明의 날
기념회 會場에서
수상한 「반민익일」
이다.

장미비 발명한 羅植煥
이 모교의 인화한 것
은 1954년의 일이다.
그리니 4년의 學
部과정을 마치고 지
학 13년이 지난 후

장미비 발명인 羅植煥
이 모교의 인화한 것
은 1954년의 일이다.
그리니 4년의 學
部과정을 마치고 지
학 13년이 지난 후

장미비 발명인 羅植煥
이 모교의 인화한 것
은 1954년의 일이다.
그리니 4년의 學
部과정을 마치고 지
학 13년이 지난 후

장미비 발명인 羅植煥
이 모교의 인화한 것
은 1954년의 일이다.
그리니 4년의 學
部과정을 마치고 지
학 13년이 지난 후

장미비 발명인 羅植煥
이 모교의 인화한 것
은 1954년의 일이다.
그리니 4년의 學
部과정을 마치고 지
학 13년이 지난 후

無公害무연탄등 特許 22건

카드카메라는 先進國도 탐내

1·7백) 연립회사의
한 부문의
제품 연구
개발에 힘
을 기울여
이러한 비
밀은 22건
의 特許權
을 취득하
고 있다. 이
중 11건은
「無公害
무연탄」
등 11건의
특許權을
취득하고
있다. 나머
지 11건은
「카드카
메라」 등
11건의 특
許權을 취
득하고 있
다.

장미비 발명인 羅植煥
이 모교의 인화한 것
은 1954년의 일이다.
그리니 4년의 學
部과정을 마치고 지
학 13년이 지난 후

장미비 발명인 羅植煥
이 모교의 인화한 것
은 1954년의 일이다.
그리니 4년의 學
部과정을 마치고 지
학 13년이 지난 후

장미비 발명인 羅植煥
이 모교의 인화한 것
은 1954년의 일이다.
그리니 4년의 學
部과정을 마치고 지
학 13년이 지난 후

揭示板

結婚

▲李甲洙(85년 自然大
學) 6월27일 申은 甲洙
등 15명으로 제15회 「인
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됨.
▲金 煥(84년 美大) 6
월25일 申은 煥 等 14
명으로 제14회 중앙
미술대전에서 조각부문 최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됨. 6
월25일 오후 3시 호암갤러
리에서 시상식을 가짐.

同窓會館 冠岳書

▲황문영(89년 經營大)
* 김이중(89년 7월 2일 14시)
* 김대만(89년 7월 6일 13시)
* 오석주(89년 7월 6일 13시)
* 김희철(90년 7월 12시)
* 박진양(90년 7월 12시)
* 류병호(89년 7월 14시)
* 황유정(89년 7월 14시)
* 김학건(89년 7월 14시)
* 김(88년 農大) 7월 13시
* 임대웅(89년 社會大) 7월 13시
* 권영애(89년 7월 13시)

詩音

▲金景鎭(67년 醫大·
6월27일 오후 8시 서울대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 향
년 86세. 서울대학교 醫學院
母校醫大교수로 재직했고 모
사부장관과 6대 國會議員(共
和)을 역임함.
▲徐丙禹(67년 醫大·
한글학회(회장) 6월27일
오후 4시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수혈으로 별세. 향
년 80세. 徐氏가문에서 10
년간 醫學의 부진(최신)
상(장학)을 받던 자로서 1954
년 母校醫大에서 1954년
회장. WHO 기관장직을 역임
함.

同窓會館 冠岳書

▲邊進宇(66년 法大·
서울지정3차장) 6월6일 서
복 4시 30분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수혈로 별세. 향
년 48세. 유족이 1남 1녀
1딸 1자가 있음.

- ▲ 12월 1일 ▲ 12월 2일 ▲ 12월 3일 ▲ 12월 4일 ▲ 12월 5일 ▲ 12월 6일 ▲ 12월 7일 ▲ 12월 8일 ▲ 12월 9일 ▲ 12월 10일 ▲ 12월 11일 ▲ 12월 12일 ▲ 12월 13일 ▲ 12월 14일 ▲ 12월 15일 ▲ 12월 16일 ▲ 12월 17일 ▲ 12월 18일 ▲ 12월 19일 ▲ 12월 20일 ▲ 12월 21일 ▲ 12월 22일 ▲ 12월 23일 ▲ 12월 24일 ▲ 12월 25일 ▲ 12월 26일 ▲ 12월 27일 ▲ 12월 28일 ▲ 12월 29일 ▲ 12월 30일 ▲ 12월 31일

會費를 내 주신 분들께 감사

校歌 · 同窓會歌 테이프를 보내 드립니다

- ▲ 12월 1일 ▲ 12월 2일 ▲ 12월 3일 ▲ 12월 4일 ▲ 12월 5일 ▲ 12월 6일 ▲ 12월 7일 ▲ 12월 8일 ▲ 12월 9일 ▲ 12월 10일 ▲ 12월 11일 ▲ 12월 12일 ▲ 12월 13일 ▲ 12월 14일 ▲ 12월 15일 ▲ 12월 16일 ▲ 12월 17일 ▲ 12월 18일 ▲ 12월 19일 ▲ 12월 20일 ▲ 12월 21일 ▲ 12월 22일 ▲ 12월 23일 ▲ 12월 24일 ▲ 12월 25일 ▲ 12월 26일 ▲ 12월 27일 ▲ 12월 28일 ▲ 12월 29일 ▲ 12월 30일 ▲ 12월 31일

◆ 韓 京 大 學

- ▲ 12월 1일 ▲ 12월 2일 ▲ 12월 3일 ▲ 12월 4일 ▲ 12월 5일 ▲ 12월 6일 ▲ 12월 7일 ▲ 12월 8일 ▲ 12월 9일 ▲ 12월 10일 ▲ 12월 11일 ▲ 12월 12일 ▲ 12월 13일 ▲ 12월 14일 ▲ 12월 15일 ▲ 12월 16일 ▲ 12월 17일 ▲ 12월 18일 ▲ 12월 19일 ▲ 12월 20일 ▲ 12월 21일 ▲ 12월 22일 ▲ 12월 23일 ▲ 12월 24일 ▲ 12월 25일 ▲ 12월 26일 ▲ 12월 27일 ▲ 12월 28일 ▲ 12월 29일 ▲ 12월 30일 ▲ 12월 31일

◆ 文 理 社 大 學

- ▲ 12월 1일 ▲ 12월 2일 ▲ 12월 3일 ▲ 12월 4일 ▲ 12월 5일 ▲ 12월 6일 ▲ 12월 7일 ▲ 12월 8일 ▲ 12월 9일 ▲ 12월 10일 ▲ 12월 11일 ▲ 12월 12일 ▲ 12월 13일 ▲ 12월 14일 ▲ 12월 15일 ▲ 12월 16일 ▲ 12월 17일 ▲ 12월 18일 ▲ 12월 19일 ▲ 12월 20일 ▲ 12월 21일 ▲ 12월 22일 ▲ 12월 23일 ▲ 12월 24일 ▲ 12월 25일 ▲ 12월 26일 ▲ 12월 27일 ▲ 12월 28일 ▲ 12월 29일 ▲ 12월 30일 ▲ 12월 31일

◆ 美 術 大 學

- ▲ 12월 1일 ▲ 12월 2일 ▲ 12월 3일 ▲ 12월 4일 ▲ 12월 5일 ▲ 12월 6일 ▲ 12월 7일 ▲ 12월 8일 ▲ 12월 9일 ▲ 12월 10일 ▲ 12월 11일 ▲ 12월 12일 ▲ 12월 13일 ▲ 12월 14일 ▲ 12월 15일 ▲ 12월 16일 ▲ 12월 17일 ▲ 12월 18일 ▲ 12월 19일 ▲ 12월 20일 ▲ 12월 21일 ▲ 12월 22일 ▲ 12월 23일 ▲ 12월 24일 ▲ 12월 25일 ▲ 12월 26일 ▲ 12월 27일 ▲ 12월 28일 ▲ 12월 29일 ▲ 12월 30일 ▲ 12월 31일

◆ 新 鮮 大 學

- ▲ 12월 1일 ▲ 12월 2일 ▲ 12월 3일 ▲ 12월 4일 ▲ 12월 5일 ▲ 12월 6일 ▲ 12월 7일 ▲ 12월 8일 ▲ 12월 9일 ▲ 12월 10일 ▲ 12월 11일 ▲ 12월 12일 ▲ 12월 13일 ▲ 12월 14일 ▲ 12월 15일 ▲ 12월 16일 ▲ 12월 17일 ▲ 12월 18일 ▲ 12월 19일 ▲ 12월 20일 ▲ 12월 21일 ▲ 12월 22일 ▲ 12월 23일 ▲ 12월 24일 ▲ 12월 25일 ▲ 12월 26일 ▲ 12월 27일 ▲ 12월 28일 ▲ 12월 29일 ▲ 12월 30일 ▲ 12월 31일

◆ 共 濟 大 學

- ▲ 12월 1일 ▲ 12월 2일 ▲ 12월 3일 ▲ 12월 4일 ▲ 12월 5일 ▲ 12월 6일 ▲ 12월 7일 ▲ 12월 8일 ▲ 12월 9일 ▲ 12월 10일 ▲ 12월 11일 ▲ 12월 12일 ▲ 12월 13일 ▲ 12월 14일 ▲ 12월 15일 ▲ 12월 16일 ▲ 12월 17일 ▲ 12월 18일 ▲ 12월 19일 ▲ 12월 20일 ▲ 12월 21일 ▲ 12월 22일 ▲ 12월 23일 ▲ 12월 24일 ▲ 12월 25일 ▲ 12월 26일 ▲ 12월 27일 ▲ 12월 28일 ▲ 12월 29일 ▲ 12월 30일 ▲ 12월 31일

※ 協 大 同 窓 會 報 大 學 同 窓 會 報 刊 載 後 送 報 費 不 收

公演

▲吳光浩초청 클라리넷독주회

-7월18일 예술의 전당 모교育大를 74년 졸업하고 바로 국립교향악단에 입단, 수석주자로 재직중 渡獨하여 하노버국립음대를 졸업한 오광호 동문은 현재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시립음악원·국립교향악단의 수석주자로 활동하면서 한국인의 역량을 음악의 본고장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간 몇차례 귀국, 국내에 새로운 레퍼터리 소개 및 깊이있는 해석을 보여준 그의 이번 연주회 피아노반주는 부인 金允貞(69년 育大卒·브라운슈바이크 시립음악원 교수) 동문이 맡았다. 스타미츠의 클라리넷을 위한 협주곡·젠즈머의 소나타네등이 연주된다.

모교졸업후 美인디애나대학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育大동창회가 주최하는 이번 독주회는 이미 예원·서울예고시절부



◇金延修(피아노)

터 크고 작은 연주회를 통해 무대경력을 쌓아온 그의 피아노가 국내 실내악계에 얼마만큼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무대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徐桂淑교수에

게 사사했다. 바흐의 토카타E 단조를 비롯, 베토벤·바르톡·쇼팽·드비시가 연주된다.

▲絃音트리오 콘서트

-7월19일 예음홀 현음트리오는 성기선(91년 育大卒) 정호진(모교育大 4년) 김우진(〃) 등 세명의 젊은 연주자로 이루어진 실내악그룹이다. 예원학교 시절부터 음악동료로서 개별적으로도 탄탄한 경력을 다져온 이들은 오랜 세월 호흡을 함께한만큼 유려한 화음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해 제7회 예음실내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는 이들의 이번 무대에서는 도흐나니의 세레나데 작품 10을 비롯, 하이든·베토벤·슈베르트가 선 보인다.

新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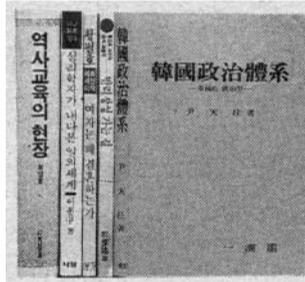
▲韓國政治體系

-尹大柱著(47년 文理大卒·前모교총장·本會理事) 西歐정치는 고대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오는 權(집권자에 의한 통치)과 아래서 위로 가는 권력(被治者の 정치참여)」이라는 극을 달리하는 2종의 권력작용에 의한 것임에 반해 우리의 경우 오로지 「王에 의한 통치」만 있어왔다고 저자는 말하는데, 이점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를 「單極的통치형」이라 정의하고 있다. 단극적인 통치에 의한 정치문화에서는 민주정치체도를 도입하더라도 권위주의가 팽배하기 마련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참여, 즉 유권자의 투표참여와 국민대표기관의 능력·자질의 향상 발전을 기하는 길밖에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책은 지난 89년 서울대출판부에서 간행된 바 있는 저자의 역저 「투표참여와 정치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일조각판·280쪽·6천원>

▲역사교육의 현장

-崔敦鎭著(55년 師大卒·목일중교장) 『역사교육과정과 수업현장 사이에 架橋를 세우고, 이 공간을 메꾸기 위해 이른바 「중간적 매개체」역할의 사명을 다하고자 이책을 썼다』고 저자

가 머리말에서 밝히듯 이책은 우리의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이 안고있는 맹점, 즉 수업현장의 목소리가 교과과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저자의 교육현장 경험과 역사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엮어졌다. 이책은 크게



6개부분으로 나뉘어 역사교육의 과정, 목표, 내용, 방법, 평가, 과제로 대별되는데 각 항목마다 이론적 제시와 함께 일선 지도사례를 덧붙여 이해를 돕고 있다. <청년문화판·572쪽·9천원>

▲여자는 왜 결혼하는가

-黃弼昊著(62년 文理大卒·한국비교철학연구회장) 여성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표방해온 철학교수의 에세이집.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 저자의 페미니즘(여성주의)에 근거한 글들은 결혼을 앞둔 여성들에게 그리 「도식적」이지만은 않은 결혼관을 일깨워주고 있다. 저자는 진정한 결혼의 조건을 언급하면서 무엇보다도 여성의 태도가 문제라고 말하면서 남자에게 의지하지 말고, 참된

결혼생활을 원한다면 먼저 홀로서기를 연습하라고 주장한다. 말의 유희나 섬약한 감상주의류의 글들이 수필이란 이름으로 범람하는 세태에서 저자 나름의 철학적 해석과 대안을 조용히 개진하고 있는 이책은 「야한여자」류의 굴절된 여성해방의 오류를 반추하게끔 한다. <풍경판·223쪽·3천5백원>

▲심리학자가 내다본 일의세계

-李勲求著(64년 文理大卒·연세대학교수) 『별소 기업체에 강의를 나가거나 잡자사에서 원고청탁을 받으면 여하치 심리학적 내용을 쉽고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시도를 글로 표현해 본것』이라고 저자는 이책의 집필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책은 일반인의 산업및 사회심리학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사회 전공하는 심리학도나 사회과학도들에게 부교재로도 활용

될 수 있도록 집필됐는데, 조직개발·자기개발을 비롯하여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인사관리·안전심리화등에 이르는 내용을 간결하고도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나남판·333쪽·5천5백원>

▲만리장성 가는길

-洪寅杓著(64년 文理大卒·母校교수) 중국문화를 전공한 필자가 변화하고 있는 중국인의 삶의 모습등을 솔직담백하게 일기로 쓴 것을 정리한 책. 최근 붓물처럼 쏟아지는 중국에 관한 책들이 원론적이고 짐짓 피상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책은 읽는이로 하여금 중국대륙의 요소 요소를 간접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중국대륙이나 대만·홍콩 등지를 여행할 사람은 물론, 중국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일조하고 있다. <청년문화판·271쪽·4천원>

展示

▲제7회 비상전

비상전은 모교美大 회화과출신의 女性동문들이 지난 86년 同德미술관에서 1회전을 시발로 매년 1회꼴로 치러오고 있다. 그들 스스로 『韓國畫의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를 둘러싼 인식의 규범을 극복하고자 붓을 들었다』고 밝히듯 그들의 작업에서는 전통의 답습이나 회고주의와는 분리된

형태로 전통적 표현의 昇華를 찾아볼 수 있다. 제한된 재료와 기법속에서 유사성의 집단적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당당한 자생적 현대미술의 한층을 열어가고 있는 이들에게서 국내 화단을 이끌어 가는 서울대인의 또 한 맥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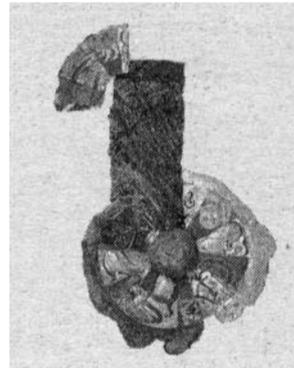
- 비상전同人 ·車明燾(70년卒·관동대강사) ·孫喜玉(72년卒·단국대강사) ·張惠容(73년卒·청주대교수) ·李仁沃(74년卒) 白純實(74년卒) ·河秀京(74년卒·전주대교수) ·朴利善(76년卒) ·李珉柱(80년卒·수원대강사)



현재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중이다. 한영혜(75년 育大卒) 동문은 이스탄부에서 피아노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미국서 후진양성및 연주활동에 전력하고 있다. 10년만에 고국을 찾은 두 연주자의 완숙한 기량을 접할수 있는 이번 공연에서는 헨데미트의 소나타E플랫장조와 모짜르트·드비시·베토벤이 연주된다.

▲金延修 귀국피아노독주회

-7월16일 예술의 전당 김연수(87년 育大卒) 동문은



▲이민주작 人生相對性原理·200×100cm·수제종이+화선지



▲장혜운작 冥·120×180cm·화선지에 수간채색

母校



英國 Wales 大와 農大 학술교류협정
 農大 韓仁奎 학장(左)은 英國 Wales 大 5월 28일 영국 Wales 大 학장 D. Gareth Jones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농대 2000년 3월 1일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양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학술교류, 학생 교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협정에는 농대 10명, 영국 Wales 大 10명, 총 20명의 교수가 교환교수로 파견될 예정이다.

치과대학(保健大學院 치과대학)
 ▲ 保健大學院 치과대학은 7월 1일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양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학술교류, 학생 교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협정에는 농대 10명, 영국 Wales 大 10명, 총 20명의 교수가 교환교수로 파견될 예정이다.

19代 總長 이달18일 直選

專講 이상 千여명 2인연기명 投票 教育部에 2명추천 大統領이 임명

專任 이상 千여명 2인연기명 投票 教育部에 2명추천 大統領이 임명

專任 이상 千여명 2인연기명 投票 教育部에 2명추천 大統領이 임명

專任 이상 千여명 2인연기명 投票 教育部에 2명추천 大統領이 임명

專任 이상 千여명 2인연기명 投票 教育部에 2명추천 大統領이 임명

專任 이상 千여명 2인연기명 投票 教育部에 2명추천 大統領이 임명

專任 이상 千여명 2인연기명 投票 教育部에 2명추천 大統領이 임명

專任 이상 教員 공채 40명내외... 서류마감 7월 31일

發展基金 조성의 同窓會...

長期信用銀行서 2千萬원 約定한 1億 납부 끝내

長期信用銀行(이하 長信)은 5월 28일 2천만 원의 發展基金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억 원의 約定금을 납부한 결과이다.

發展基金 조성의 同窓會... 長信은 5월 28일 2천만 원의 發展基金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억 원의 約定금을 납부한 결과이다.

發展基金 조성의 同窓會... 長信은 5월 28일 2천만 원의 發展基金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억 원의 約定금을 납부한 결과이다.

三星物産·商工部에 職場인의 참여율 100%

三星物産·商工部에 職場인의 참여율 100%... 삼성물산과 상공부에 직장인의 참여율이 100%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農大 職場인 참여율 100%

農大 職場인 참여율 100%... 농대 직장인의 참여율이 100%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총학생회 운영 校內 자판기 福祉組合에 넘기기로

총학생회 운영 校內 자판기 福祉組合에 넘기기로... 총학생회는 학교 내 자판기 운영을 복지조합에 넘기로 결정했다.